



의자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한 도구로 정의된다. 기본적으로 시트와 등받이를 받쳐주는 다리로 구성된다. 과거에 권위의 상징이었던 의자는 점차 장식이 배제되고 인간의 편리를 위한 인체공학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다. 의자는 척추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데 등받이 조절 기능과 목받침이 없다면 척추의 곡선을 유지하기 어려워 허리에 좋지 않다. 의자의 사진은 무결점하다. 흰 바탕에 놓인 채 정면으로 어떤 카메라에 의해 찍혔다. 아래를 보면 바퀴또한 정면을 향하도록 꼼꼼히 신경써서 촬영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바탕 색이 #FFFFFF인 것을 보아 보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이므로 의자에 앉을 수 없고 바라볼 수만 있다. 이미지 파일이라 자유롭게 크기나 컬러를 변경할 수 있다. 실제 이 의자는 에어론 의자 종류 중 하나로 상품 색상 카테고리에서 화이트로 표시될 정도로 겉보기에는 하얀 의자다. 그러나 실제 색상은 그레이이다. 이동의 편리를 주는 가구용 우레탄 바퀴**castor**가 연결된 플라스틱 오발다리는 가운데로 모여 스테인리스를 감싼 중심봉을 만난다. 봉은 아무리 무거운 성인이 앉아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 위로 올라가면 의자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납작한 모양의 손잡이와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크기의 두터운 패브릭 좌판이 있다. 허리를 기대 근육이 쉴 수 있도록 제작된 평평한 모양의 직사각형 등판 재질 또한 패브릭이다.

의자를 선택한 이유..?

평소에 자주 사용해서 익숙하다. 친밀하다. 그래서 맘에 든다.

요즘 코딩을 공부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코딩하듯이 사물을 묘사하고 싶어졌다.

단 하나라도 오타가 나거나 논리가 맞지 않으면 절대 실행되지 않는 단호함
대충 상상만해서 만들 수는 없다
단순하지 않다 버튼도 **type**별로 라디오, 체크박스, 셀렉트옵션이 있고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광범위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상황에 알맞는 제목을 정성들여 찾는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질투어린 시선과 어울린다

애매한 명칭을 쓰지 않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한다.
묘사의 순서: 1.구조 2.스타일 3.기능 순으로 사물이 완성되가는 듯한 과정으로 작성한다.
개인적으로 너무 표현하고싶지 않다. 음... 동그란 흰색 바퀴 > 정원에 가까운 회색이 살짝
섞인 화이트 컬러 의자용 바퀴..

몸을 기댄다.

어떤 규칙을 정해야 할까

어떤 순서로 묘사해야 할까

우리 몸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물이라 생각한다.

글로 묘사하고 어떠한 이미지 만들기

결과물: 글 3편, 그래픽 하나